먹거리 공포

"불량식품 공화국… 사먹기 겁난다"

과자 매출 뚝…간식 손수 만들어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통조림' '컵라면 벌레' 등 최근 먹거리를 둘러싼 공포가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먹거리 공포가 퍼지면서 과자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불안해진 주부들은 자녀에게 직접 간식을 만들어 먹이는 등 새로운 풍조도 낳고 있다.

◇과자 등 식품 매출 '뚝'=대형 할인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간식거리용 과자나 아이들 먹을거리를 찾는 주부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새우깡 수요가 많은 노래방에서는 새우깡 대신 팝콘으로 대체하면서 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매출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 효덕동 D마트 주인 한모(45)씨는 "자녀들이 과자를 사달라고 떼써도 엄마들은 과자 진열대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며 "과자 매출이 최근 들어 20% 이상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H할인점의 경우 지난 22일 새우깡 매출은 3만8천원으로 새우깡 파문이 일기 전인 지난 15일 판매량 17만원에 비해 매출액이 4분의 1로 떨어졌다. 광주시 서구 L할인점의 경우에도 50% 이상 새우깡 매출이 떨어졌다.

◇"내 아이 먹을거리는 직접"=잇단 먹거리 사고로 인해 간식을 직접 만드는 주부들도 늘고 있다. 못 믿을 인스턴트 식품 대신 직접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간식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식품 매출은 떨어졌지만 밀가루나 과일 판매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 백화점·할인점 문화센터의 제과·제빵 강좌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고, 간식 만들기 책들도 판매량이 늘고 있다.

주부 최화심(30·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류는 전혀 구입하지 않는 대신 과일이나 채소류 등으로 간식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예전부터 먹거리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외식도 줄이는 등 아이들의 식성을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주부 박선화(44)씨도 유기농으로 만든 밀가루 등을 이용해 쿠키나 빵, 떡 등을 직접 만들어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주고 있다. 박씨는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검증되지 않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어 직접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주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줄 먹을거리를 살 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물질 식품 신고 한달 평균 6.7건=광주 YMCA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물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들이 신고한 건수는 80여건으로 한 달 평균 6.7건에 달한다. 이 중 분유(15건), 과자(15건), 만두(10건) 등 대부분이 인스턴트 음식에서 발견됐다.

광주 YMCA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유통과 판매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농심·동원 다른 제품 "또 이물질 나왔다"

'생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농심과 ㈜동원F&B의 다른 제품에서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모씨는 "지난달 초 광주시 동구 황금동 모 마트에서 구입한 농심 컵라면을 먹던 중 면에서 유충 4마리와 유충 껍데기를 발견했다"고 22일 주장했다. 류씨는 문제의 라면을 냉동실에 얼려 보관한 뒤 농심 고객상담 센터에 알렸으나 농심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면은 110도의 고온에서 30분 동안 익히고 스프는 영하 35도에서 동결처리해 벌레가 나올 수 없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동원 F&B의 녹차 제품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됐다. 천안에 살고 있는 김모(44)씨는 지난달 말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동원보성녹차 페트병 안에서 파래, 매생이 등의 녹조류 같은 이물질 수십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참 〈7465〉 김종두

무안 주택에서 화재 10분만에 5명 참변

지난 22일 새벽 2시42분께 무안군 무안읍 읍내리에 사는 정모(75) 할머니의 집에서 불이나 정씨와 손자 김모(15·전주 H중 3년)군, 김군의 친구 이모(15·전주 W중 3년)군·이모(15·〃)양·박모(15·전주 H중 3년)군 등 5명이 숨졌다.

정씨 등은 큰방과 작은방, 주방에 각 1명씩, 나머지 2명은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이 집에 세들어 살던 장모(33)씨는 "잠을 자려는 순간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 봤더니 연기와 함께 불이 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불은 집 내부면적 115㎡ 중 20㎡를 태운 뒤 1천2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정씨 등이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해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주말을 맞아 전주에 사는 중학교 친구 3명과 함께 할머니 집에 놀러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으로 미뤄 전기합선 또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 서부분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광섬유 소나무 신기해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 광주봄꽃박람회'에서 유치원생들이 광섬유로 만든 소나무 잎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성큼 다가온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꽃박람회는 '녹색도시와 꽃의 만남'을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인조 택시 강도

22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모 보건센터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세 명이 강도로 돌변, 운전사 김모(58)씨를 위협해 현금 1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들 강도는 택시 조수석과 뒷좌석에 나눠 탄 후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광주시 서구 염주동 K은행으로 차를 몰게 한 뒤 김씨의 신용카드를 이용, 현금을 인출했다.

이들은 돈을 빼앗은 후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인근에 택시를 버린 뒤 달아났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빗길 잇단 교통사고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3일 오후 3시10분께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도로에서 전북 W관광 소속 버스(운전자 박모·70)와 스포티지 승용차(운전자 정모·47)가 충돌해 관광버스 승객 등 1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께에도 목포시 용해동 용해 주공 3단지 앞 도로에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도돼,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이모(17)양이 중상을 입고 중·고생 1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영광서 국내 최고령 백하수오 채취

쌍나팔

○…영광군 교천리 영광향교에서 국내 최고령으로 추정되는 백하수오(白何首烏·사진)가 향교 관리인 나모(여·60)씨에 의해 채취돼 화제.

○…이번에 캐낸 3뿌리의 백하수오 가운데 1개는 직경 20㎝에 무게가 5.5㎏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백하수오 중 가장 크고 무거운 것으로 평가되면서 감정가만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정형범 회장은 "수령이 족히 200년은 넘을 것으로 보여 국내 최고 수령으로 추정된다"고 평가.

○…정 회장은 또 "특히 백하수오가 발견된 장소와 가까운 곳에 700여년된 은행나무와 비자나무가 자라고 있어 효능도 뛰어날 것"이라고 설명.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대학 캠퍼스서 성폭행·강도

20대 여대생이 대학 캠퍼스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금품을 빼앗겼다. 23일 새벽 0시께 광주시 동구 J대학교 내 공과대학 농구장 인근에서 20대 남자 한명이 귀가하던 광주 A대학교 학생 B(여·22)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뒤 현금 2만5천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마스크와 검은색 운동복을 착용한 20대 후반 가량의 남성이 등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범인의 뒤를 쫓는 한편 동종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피의자 정씨 "4년전 여인 살해" 자백

여죄 수사 주력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3일 피의자 정모(39)씨의 자백 내용을 토대로 여죄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2004년 7월 군포에서 실종된 정모(당시 44세)여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과 관련, 이를 뒷받침할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1월 발생한 안양 노래방도우미 실종사건 당시 정씨의 행적이 불분명함에 따라 이 사건에도 연루됐는지 확인중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정씨가 2004년 7월 17일 군포시 금정동에서 실종된 정 여인을 금정동의 한 모텔에서 목졸라 살해한 뒤 시흥 월곶 쪽의 다리에서 시신을 바다로 던져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정씨가 모텔 방에서 정 여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고, 모텔 1층 주차장 한쪽에 정 여인의 시신을 옮겨 놓은 뒤 집에서 자기 승용차를 몰고와 시신을 유기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여인은 2004년 7월17일 오후 11시40분께 금정동 금정역 인근에서 행방불명됐으며, 피의자 정씨는 당시 정 여인과 마지막으로 4차례 전화 통화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다. /연합뉴스